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현대불교 news.buddhapia.com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1일 수요일(주간) 제402호 7

◇생명의 근원인 물은 모든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 사진은 한강의 발원지 태백산검룡소의 물줄기.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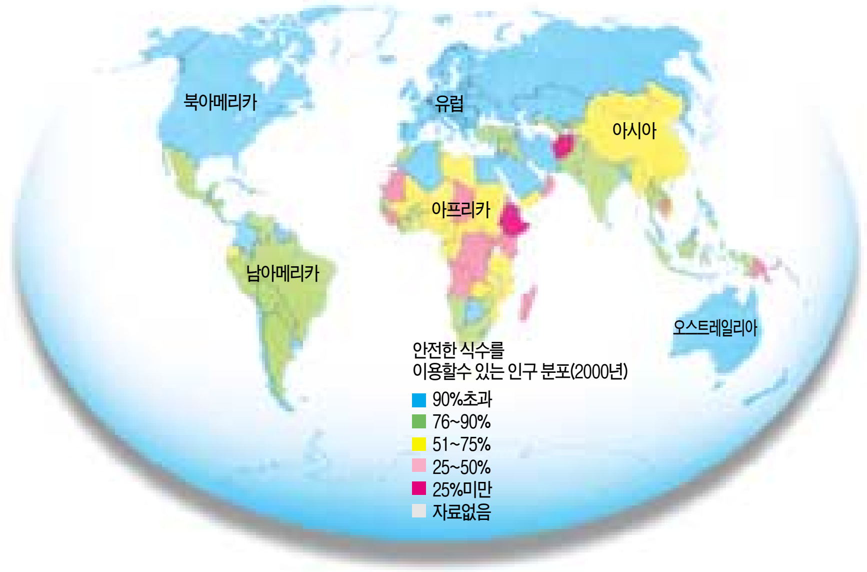
물부족 해결, 발등의 불

유엔, 2003년 '세계담수의 해'로 선언

지구 온난화, 열대우림 파괴, 물고기 남획 등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재앙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담수(淡水, 강이나 호수 등의 염분이 없는 물)의 부족이다. 물 부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연구내용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2003년을 '세계 담수의 해'로 선언하고 지구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부족 현상이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2002 물 부족지표'에 따르면 12억명이 안전한 음용수(飮用水)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보다 두배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위생설비도 없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에 500만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에서 기인한 이질, 콜레라 등의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5년께에는 담수원 고갈과 오염으로 27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되고, 국가간 물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수 있는 국가(파란색)로 분류돼 있지만 2025년에는 물기근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안전한 식수를 이용할수 있는 인구분포 (2000년, 세계인구행동연구소).

한국, 물부족국가…녹색댐 등 저장시설 필요

1인 하루 수돗물사용 400ℓ-獨·佛보다 많아

산사 淸淨水 '물쓰듯' 해선 안될 소중한 자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약 97%가 염수인 바닷물이다. 약 2%는 극지방에서 빙상과 빙하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수, 관개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08%에 불과하다. 유엔이 내년을 세계 담수의 해로 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 부족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강, 호수 등의 담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93년부터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로부터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물 부족 현상은 가뭄이나 수자원의 부족에서 온 현상이 아니라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급수량은 하루 400여ℓ로 독일 132ℓ, 덴마크 246ℓ, 프랑스 281ℓ 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수도관 누수로 인한 낭비가 연간 10억t이 넘는다. 현재 추세라면 2011년에는 물 부족량이 20억t에 이르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전국 최고인 인천시의 남동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절수기를 무료로 공급하며, 환경부에서도 2011년까지 3조1천억원을 들여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방침이다.

◇순천 선암사의 약수.
사진제공=선암스님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 부족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도 가시화 되고 있다. 대안댐으로 평가받는 녹색댐이 대표적이다. 녹색댐은 산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 속도를 느리게 해 산지가 머금는 물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고 있던 물을 흘려 보내 하천유입수 양을 일정하게 하는 산림의 홍수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댐이다. 산림전문가들은 220만ha의 산림을 솎아주면 5년 뒤 숲의 물 저장능력도 10% 늘어나 60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교에서 우주의 네가지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 가운데 하나인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我今淸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垂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로의 차로 바꾸어 삼보전에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거두어 주소서)'

새벽에 가장 먼저 불전에 올리는 청정수 공양에는, 모든 진리의 근원인 법신에 생명의 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옛 스님들은 흐르는 시냇물에 함부로 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흔한 물이지만 물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몸에 밴 가르침을 준 것이다.

물은 만생명을 잉태한 근원지다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포용한다. 온갖 더러움을 안고 흘러가지만 흘러가면서 정화되어 다시 청정한 물로써 모든 생명에게 돌아간다.

오대산 수정암 우통수(于筒水), 구례 천은사 감로천(甘露泉), 화엄사 옥천(玉泉),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원효샘, 삼랑진 만어사 정신수(精神水), 경주 분황사 삼룡변어정(三龍變漁井), 순천 선암사 약수, 해남 일지암 유천(乳泉), 곡성 태안사 돌샘, 부여 무량사 샘물, 고란사 약수… 유명한 약수는 대부분 산사에 있다. 산중의 사찰에 가면 누구나 약수 한 모금을 마신다. 시원하면서도 맑고 감미로운 맛은 입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청량하게 해 준다.

원효스님은 밤중에 타는 갈증 속에서 해골물을 시원한 감로수처럼 생각하고 마셨다가 미혹한 마음을 깨쳤다.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는 화택과도 같은 이 사회에서 산사의 청정수는 정화수(淨化水)와 같다.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있는 한 모금의 약수를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까지 맑힐 수 있는 것이다. 산사의 청정수도 지켜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물도 말의 파동 느끼는 생명체"

법회시 물의 소중함 가르치는 육지장사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체가 물에서 잉태됐고, 대부분 물로 몸이 이뤄져 있죠. 물은 우주와 모든 생명체 안에서 순환합니다.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몸밖으로 방출시키는 것도 물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주도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주 육지장사 주지 지원스님의 법문은 항상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소곳이 합장을 하고 눈을 감은 채 육지장사에서 길어 온 청정수를 건네받은 불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장경을 염송한다. "물은 말의 파동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물의 결정도 흐트러지지만, 좋은 말을 하면 인체와 결합할 수 있는 최적 상태인 육각수로 반응하죠."

지원스님은 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즘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운동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벌써 6년째 법회때 마다 물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육지장사 신도들은 생명의 근원수로서의 물을 느끼며 경건하게 마시고 있다.

◇육지장사 신도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물을 마시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